

# 다시 일상으로...역·터미널 차분한 귀경행렬

## 광주~서울 5시간 소요...대체로 소통 원활

## 영화관·박물관 등에 가족단위 시민들 북적

설 연휴 마지막날인 11일 귀경 행렬로 오후까지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졌지만 밤 9시 이후로는 대체로 원활한 소통을 보였다.

도로공사는 이날 오후 6시를 기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앞으로 10만여대의 차량이 추가로 귀경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번 설은 주말과 겹쳐 짧은 데다 전국 곳곳에서 간헐적으로 눈과 비가 내리고 한파까지 이어지면서 귀경을 포기하는 인원이 늘어 예년에 비해 다소 한산했다는 분석이다.

연휴가 끝난 11일 광주·전남지역에서도 막바지 귀경 행렬이 이어졌다. 광주역과 광주 송정역 등에는 이른 오전부터 열차를 타기 위해 나온 시민들로 북적었다. 광주종합터미널과 전남 주요 시군 터미널, 여수항 등 항공에도 가족들과 아쉬운 작별인사를 하는 귀경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오랜만에 고향을 찾았다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귀경객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와 함께 아쉬움이 교차했다.

한국도로공사 전남분부는 본격적인 연휴가 시작된 지난 8일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모두 300만대(귀성 154만3000대, 귀경 145만7000대)의 차량이 광주·전남 주요 요금소를 오간



“잘 쉬었다 갑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1일 광주시 서구 고속버스터미널에 짧은 휴식을 마치고 일터로 돌아가는 이들이 버스표를 구입하기 위해 길게 줄지어 있다.

으로 평소 주말 수준인 17만1000대의 차량이 광주·전남 주요 영업소를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귀경 시간(요금소 기준)은 광주~서울 5시간, 목포~서울 5시간30분으로 평상시보다 1시간30분~2시간 가량 더 걸렸다. 하행선은 서울~광주 3시간10분, 서울~목포 3시간30분 등으로 원활한 흐름을 보였다.

광주·전남권 주요 고속도로는 이

날 오후 늦게까지 정체 구간이 없었지만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신탄진 부근~남이 분기점 15km구간을 비롯해, 천안~성환 활주로 부근 7km, 북천안 나들목~안성 분기점 16km, 오산~동탄 분기점 4km 등이 일시적으로 정체됐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전북영성소~군산 방면 2km, 홍성휴게소~홍성 11km, 당진~서평택 23km 구간이

잠시 막혔으며,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는 남공주~정안 휴게소 26km 구간 등에서 정체현상이 빚어졌으나 12일 자정을 기해 대부분의 고속도로에서 정체현상이 풀렸다.

한편 11일에도 광주 시내 영화관과 박물관, 전남지역 주요 관광지 등에는 설 연휴를 즐기려는 가족단위의 시민들로 북적거렸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22분 / 해질 18시 12분 / 달뜨기 08시 07분 / 달지기 20시 27분

#### 우산 챙기세요

구름 많은 가운데 낮 한때 비 오는 곳 있겠다.

광주	흐림	-3/4℃
목포	흐림	-2/4℃
여수	흐림	0/4℃
나주	흐림	-4/4℃
완주	흐림	-1/4℃
구례	흐림	-4/5℃
강진	흐림	-2/4℃
해남	흐림	-2/4℃
장흥	흐림	-2/4℃
순천	흐림	-4/4℃
영광	구름많음	-5/3℃
진도	흐림	-1/4℃
전주	구름많음	-3/3℃
군산	구름많음	-4/3℃
남원	구름많음	-4/3℃
홍산도	흐림	-1/4℃

〈오전〉 바다	중랑	파고	체감온도	감기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0m	관심	높음	높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1.0~1.5m			

〈오후〉 바다	중랑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1.5m	목포 03:21	08:36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서	1.0~2.0m	여수 15:54	21:02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5m	여수 10:39	04:09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22:49	16:37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침기상청>

날짜	13(수)	14(목)	15(금)	16(토)	17(일)	18(월)
날씨	☀	☁	☀	☀	☁	☁
최저/최고	-3/6	-2/7	0/3	-3/5	-1/8	5/8

## 광주지하철역 “라돈 걱정 없다”

### 보건환경연구원, 전동차 내부 등 방사성 물질 기준치 이하 검출

광주지하철 역사와 전동차 내부 공기 중 폐암을 유발하는 방사성 물질인 라돈 걱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지난해 31일까지 지하철 역사 18곳과 전동차 내에서 라돈을 측정해 결과, 지하철 역사에서는 m당 기준치(148Bq) 이하인 평균 9.5~39.0 Bq이 검출됐다”라고 밝혔다. 전동차 내도 m당 10.0~35.8 Bq이 검출돼 역시 기준치 이하였다. 라돈

은 밀폐된 실내에서 고농도로 농축되는 성향을 보이는데, 특히 겨울철에는 환기 등이 제대로 되지 않아 농도가 더 짙게 나타난다.

연구원 관계자는 “라돈은 토양, 암석 등에서 자연 발생하는 무색·무미·무취의 방사성 기체로 폐암의 주요 원인이 된다”며 “밀폐된 실내공간에서는 라돈이 계속 축적되므로 주기적인 환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 음식에...교통사고에...연휴 사건사고 잇따라

### 나주 남평 폐차재공장 화재도

설 연휴(8~11일)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교통사고, 화재, 안전사고 등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지난 9일 밤 10시40분께 순천시 남평동 박모(57)씨 집에서 김모(57)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서 박씨는 “김씨와 오전부터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오후에 잠시 외출했는데 집에 와 보니 김씨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혼자 떡을 안주로 먹다가 소주를 마시다가 떡이 목에 걸리면서 호흡 곤란 증상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지난 9일 오후 10시20분께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백아대교 입구에서 SUV 차량이 도로 옆 콘크리트벽을

들이박아 승용차에 타고 있던 김모(15)양이 숨지고 사촌인 운전자 김모(19)군 등 5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경찰은 명절을 맞아 집에 온 김양 등이 함께 여수 백아대 등대 등 바다 야경을 보러 나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오전 11시 20분께 화순군 동면 화순공업소 경도에서 작업 중이던 최모(54)씨가 돌에 머리를 맞고 숨졌다.

최씨는 경도 안 3km지점에서 지지대 보수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또 8일 오후 4시 10분께 나주시 남평읍 한 폐차재공장에서 불이 나 1억 2000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10시간 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16대, 소방대원 100여

명을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였지만 인화물질과 유독가스 등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 다세대 주택·원룸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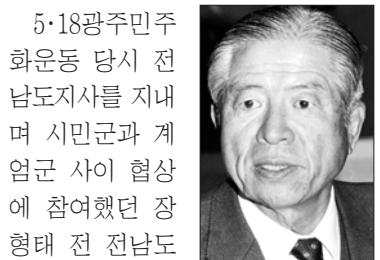
### 고화질 CCTV 설치

자체 방범시설이 미흡해 성범죄나 강·절도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다세대 주택이나 원룸촌 등 우범지역에 고화질 폐쇄회로(CC)TV 500~1천 대가 집중 설치된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성폭력특별관리구역이나 서민보호치안강화구역에 예산 56억원을 투입, CCTV 500~1000대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5·18 당시 전남지사 지낸 장형태씨 별세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지사를 지내며 시민군과 계엄군 사이 협상에 참여했던 장형태 전 전남도지사가 지난 10일 별세했다. 향년 84세.

광주사범학교 심상과를 졸업한 고인은 광주시장과 제19대 전남지사를 지냈고 해양도시가스 회장, IBT 회장을 역임했다.

특히 고인은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지사로 재직하며 시민군과 계엄군 사이의 협상에 참여했다.

그러나 도중에 사표를 제출했고 시민군이 계엄군에 의해 진압된 직후인 그해 5월 28일 공직에서 밀려나는 등 비운의 길을 걷기도 했다.

공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각종 오행과 무어에 휩싸이면서 은둔생활을 하기도 했다.

1981년부터 20여년 동안 해양도시가스 회장으로 일했으며 재직 당시인 1992년 광주시 북구 용봉동 해양도시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장 전 지사는 최근 아들인 고(故) 장승우 전 기획예산처 장관과 함께 2억5000여만원의 발전기금을 순천대에 기탁해 대를 이은 기부로 주목받은 바 있다.

유족으로는 아들 민기(영신창업투자 회장), 환빈(전 현대아산 전무), 두일(STX팬오션 상무)씨가 있다.

민씨는 광주2리장제시장 VIP실. 장 전 지사는 광주시 북구 오치동 선영이다. 062-250-4455.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3년 연속 “올해의 항공사상” 수상! **아시아나항공**과 함께하는 짜릿한 제주여행~

# 신비의 섬 “제주 탐방” 투어

**광주공항출발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왕복 2박3일 (1인) ₩229,000~**

**완도항출발 (블루리레)** 완도항고속

**왕복 2박3일 (1인) ₩169,000~**

**목포항출발 (씨스타크루즈)** 씨스타크루즈

**왕복 2박3일 (1인) ₩155,000~**

**1일** 광주공항 출발 - 제주공항 도착 - “환상제주” 피켓팅 - 식사(개별식) - 호텔 체크인 및 자유시간

**2일** 호텔 조식 후 관광 - 아름다운 해변을 주는 동백연역 **카멜리아힐** - 천지연폭포 - 석부재미공원 중심(전북해물전골+전복화+옥동구이) - **화순꽃지왕 생태탐방숲길 트레킹** - (선택관광)산방산유람선 미니어처박물관 소인국테마파크 & 옛날엔적에 - **더마파크 공연 or 제주서커스월드** 식사(개별식) - 호텔 체크인 및 자유시간

**3일** 호텔 조식 후 관광 - **탈라엔(토산품점)** - 삼나무술길 경유 (선택관광)메이얼랜드 or 라스베가스 메직타이거쇼 - **꽃지왕 테마여행 에코랜드 테마파크** **조랑말승마체험** - **중식(토종돼지불고기+숙진+출발막걸리)** 천가지 아름다운이 있는 미천굴관광지구 **일출랜드** 성산일출봉의 아름다운 자태와 탁 트인 해안절경 **선지코지** 종달리 해안도로 경유 - 해변촌 - 농수산물 소품 제주공항 도착 후 티켓팅 - 광주공항 도착

여행사 파트너 모집 **광주/전남 T.062-675-0064**

하이센스여행사 350-6222 | 이유여행사 374-1881 | 메이투어 070-7093-0555 | 한별투어 956-0045 | 침탄/투어디자인 974-3050 | 무등파크여행사 384-7470 | 동구/다니엘여행사 227-7422 | 고고투어 603-4416

특급호텔과 함께 겨울 특가여행!!

**신라호텔 (~2월14일)** + 2박2조식 포함, K5또는 동급 54시간 기준(스타 주중적용 : 일~수 숙박)

◆항공/왕복항공(유류세별도) **주중 495,000원~ 주말 644,000원**

**해비치리조트&호텔 (~2월21일)** + 2박2조식 포함, K5또는 동급 54시간 기준 (구정연휴기간 별도 문의)

◆해비치리조트 항공/왕복항공(유류세별도) **주중 415,000원~ 주말 569,000원**

◆해비치호텔 항공/왕복항공(유류세별도) **주중 440,000원~ 주말 599,000원**

\*\* 편의시설등... 놀림 어린이 놀이방 무료 이용 가능